VOICEYE
voiceye.com

손으로 보는 세상

2015 January
vol. 174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CONTENTS

02

03
점자로 말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4
테마기획
신년사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

06
인터뷰
시각장애인을 향한 의리!
: 배우 김보성 씨

08
정보PLUS
시각장애의 원인
: 백내장
월드 리포트
: 미국 미시간 주에
첫 시각장애인 대법관 당선!

09
함께 사는 이야기
생각이 바뀌니 세상이
아름다워졌어
: 김영민(시각장애1급)

10
포커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및 한글자막 영화
: 다채로운 콘텐츠로
더 편리하게 찾아갑니다!

11
뉴스앨범
1. 서울메트로와 함께하는
사랑의 김치나누기
2. 서울메트로 건축사업소
후원물품 전달식
3. 시각장애인 스키캠프
4. 제10회 2014 정보접근성
동향 세미나

12
안내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
후원안내

손으로보는세상 2015년 1월 174호
발행일 2015년 1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진선
주소 150-170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T 02.6925.1114 F 02.6925.11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그래픽오션 02.3422.5612 www.graphicocean.co.kr 캘리 임캘리 www.imcalli.com

VOICEYE
voiceye.com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점자로 새해 인사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읽기형 ①② ③④ ⑤⑥

점자일람표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모음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약자	열	영	옥	온	옹	운	울	은	을	인	것		ㅆ받침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장부호	.	?	!	,	–	~		•	“	”	‘		’		
문장부호	:		;		줄임표 (· · ·)										
영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영어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대문자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ㅈ,ㅊ,ㅆ,ㅉ]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엉'으로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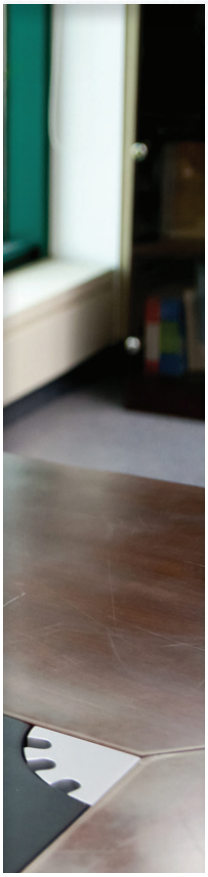
신년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이 병 돈**

안녕하십니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이병돈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를 아프게 했던 갑오년 한 해가 가고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사랑하는 100만 시각장애인과 가정에 항상 웃음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새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세계 120여 개 회원국을 보유한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IBSA: International Blind Sports Federation)이 4년마다 개최하는 시각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로서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는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전 세계 80여 개국 6,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 대회는 우리나라 유사 이래 시각장애인계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15년 새해에는 일상생활에서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라는 이유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생활이 편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많은 부분에서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상품을 고를 때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워 항상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건물에서 특정 위치를 찾아가고자 할 때도 위치 정보를 알 수 없어 헤매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도 여전히 접근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인터넷, 모바일, 방송 분야 모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다음 과제를 추진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이 보다 쉽게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많은 생활필수품이 만들어지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확인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각장애인이 보다 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점자 음성 표지판 도입 및 확대입니다. 현재 일부 건물에 보면 점자로 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지판이 매우 한정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어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도움을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신 NFC 기술과 스마트폰을 접목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점자와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개발하고 이러한 표지판을 법제화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시설에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 자격제도 운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웹 및 모바일 접근성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시각장애인이 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웹 및 모바일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적은 금액이나마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의 2015년도 예산을 증액한 만큼 동 센터가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어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조속히 재활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연합회가 실시하는 많은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시각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선결 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보화에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일자리 문제, 안전 문제, 복지 문제 등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에 있어서도 관련 단체나 기관들과 협력하여 빠뜨리지 않고 하나하나 챙겨 우리 시각장애인 모두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설계하도록 하여 우리 시각장애인 연합회를 반석에 올려놓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을미년 한 해에는 우리 100만 시각장애가정에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함께 건승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시각장애인을 향한 의리! 배우 김보성 씨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의리 열풍이 불었습니다. 각종 TV 프로그램과 광고에서 배우 김보성 씨가 다양한 의리 패러디가 나타났는데요. 배우 김보성 씨가 의리를 외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해온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져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의리 열풍의 주인공, 배우 김보성 씨와 으리으리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배우 김보성

▲ 좌 :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손병두 위원장, 우 :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보성 씨

Interview

세월호 사고 기부금, 미얀마 아동 후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처럼 끊임없는 봉사활동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제가 늘 항상 의리를 외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의리는 1단계가 우정의 의리, 2단계가 공익을 위한 정의감, 3단계가 나눔의 의리입니다. 바로 이 3단계 나눔의 의리를 실천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늘 의리를 외치는 이유가 대한민국 전 국민의 가슴에 나눔의 의리가 새겨져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신념이 생기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전부터 저의 오랜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관련하여 여러 후원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연말에는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계신 시각장애인 선수들을 존경합니다.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가 전 세계적인 대회지 않습니까? 이런 대회의 홍보대사가 된 것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서 많은 시각장애인분들께 희망과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해 열풍처럼 의리 신드롬이 일어났는데요. 새해에는 어떠한 활동을 계획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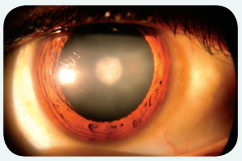
지난 연말부터 MBC플러스미디어에서 정의본색이라는 대국민 헌신 봉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의리가 유행했는데, 제가 잘나서 유행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서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대중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2014년보다 더 온몸을 던져서 활동할 생각이고요. 기부나 봉사활동을 떠나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만이 그 보이지 않는 답답한 마음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을 항상 가족이라고 끝까지 시각장애인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시각장애인 분들도 항상 포기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또 올해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가 개최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알고 응원해주실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의리! 정의!

배우 김보성 씨는 인터뷰 내내 활기찬 목소리로 진심을 다해 답변해주셨습니다. 김보성 씨가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는 80여 개국의 6,000여 명의 시각장애선수단이 참가하는 시각장애인국제종합경기대회로 아시아권 최초로 2015년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끝까지 의리와 정의를 외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진심을 보여주신 배우 김보성 씨, 새해에도 의리있는 행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시각장애의 원인
백내장



시각장애를 유발하는 안질환으로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각막혼탁 등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백내장이 시각장애 원인의 47.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눈의 검은자와 홍채 뒤에는 투명한 안구조직인 수정체가 있어 눈의 굴절기관으로 작용합니다. 눈으로 들어온 빛은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굴절되어 망막에 상을 맺게 되는데, 백내장은 이러한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백내장은 수정체의 어느 위치가 혼탁해졌는지, 또한 혼탁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시력감소를 유발합니다. 부분적인 혼탁이 있을 경우에는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서서히 진행되므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정도로 증상이 진행됐다면 서둘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백내장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백내장의 원인은 크게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뉩니다. 선천성 백내장은 대부분 원인 불명이며 후천성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백내장이 가장 흔하며 외상, 염증에 의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내장을 치료방법에는 약물과 수술이 있습니다. 약물의 경우 진행을 더디게 할 수는 있으나 수정체를 다시 맑아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혼탁이 생긴 수정체를 제거한 후 시력에 맞는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됩니다.

월드 리포트
미국 미시간 주에 첫 시각장애인 대법관 당선

미국 미시간 주에서 리처드 번스타인(41)이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대법관에 당선됐습니다. 미시간 주에서 시각장애인이 대법관이 된 것은 번스타인이 처음입니다. 특히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대법관이 된 것은 미국 전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해집니다.

번스타인은 2015년부터 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른 대법관이라면 재판 자료를 읽느라 눈이 바쁘겠지만, 시각장애인 번스타인은 보좌관이 읽어주는 내용을 듣고 핵심내용을 암기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대법관 번스타인은 언론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처럼 읽고 쓸 수 있다면 일이 훨씬 편했겠지만 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장애가 있기에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외워야 하고 각오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각오를 나타냈습니다.

대법관 당선 전부터 미시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번스타인은 15번 이상의 마라톤을 완주했으며 2008년에는 철인삼종경기를 해냈습니다. 시각장애를 딛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번스타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생각이 바뀌니 세상은 아름다워졌어

김영민_시각장애1급 · 인천시 연수구

어려서부터 야맹증 때문에 밤만 되면 꼼짝없이 집안에서만 보내면서 살았지요. 밤눈이 어두워도 그러려니 하면서 슬픔 같은 것도 없이 살다가 33세에서야 한쪽 눈이 사물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병원이라는 곳을 처음 가보았지요. 의사가 그러더군요. 지금의 시력도 점차 잃게 될 것이라고. 나머지 한쪽 눈마저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치료 방법도 없다는 얘기에 울컥 눈물이 고이더군요. 그때서야 저의 병명이 망막색소변성증이란 것도 알게 됐죠.

그러다가 2007년 47세가 되고 마침내 동전만큼 보이던 세상마저도 더는 볼 수 없게 됐지요. 가슴 속에서 뭔가 와그르르 무너져 내리더군요. 담담하게 맞으리라 수백 번 마음먹었는데 그만 둑이 무너진 듯 그래서 범람하는 물처럼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한참이 지난 후에야 누구도 제 서러움을 다독거려 줄 수는 없다는 것, 내 삶을 매듭져야 하는 건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요. 시각장애인으로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점자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선생님이 찾아와 점자일람표를 주었지요. 놀랍고 감사했던 것은 찾아와 주신 선생님도 전맹 시각장애인이었던 것이었죠. '아! 시각장애인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6개월을 두문불출하며 점자용지 700여 장을 앞뒤로 찍어댔습니다. 성경의 잠언서를 찍고 이솝우화 테이프를 사서 들으며 찍었지요. 누구에겐가 도움을 줄 수도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그때만 해도 많은 점자도서관이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순진했다기보다는 너무 몰랐던 까닭이었습니다.

이젠 점자책을 읽을 수 있게 되어서 세상을 다시 맞이하듯 가슴이 따뜻해지는 감동과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자용지 세 장에 심정을 찍어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전에 제게 찾아와주셨던 선생님은 제가 가져간 점자용지를 읽고 또 읽고 말했습니다. "야! 정말 열심히 했군요. 이 정도면 바로 점역 · 교정사 자격시험을 봐도 되겠어요!"

그렇게 세상으로 비로소 나왔습니다. 복지관에서 다른 시각장애인이 점자 배우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지요. 그리고 지금은 인천에 있는 혜광학교를 2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내 삶에 처음 겪는 사건들을 맞고 있지요. 자라나는 아이들과 또 다음에 태어날 아이들이 좀 더 밝은 세상을 맞게 하기 위해서 어른다운 생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한 움큼이나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에서 살다가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및 한글자막 영화

다채로운 콘텐츠로 더 편리하게 찾아갑니다!

새해에는 시각장애인의 영화 관람의 폭이 넓어지고 방법도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화면해설 및 한글자막 영화로 제작되고, 화면해설 및 한글자막 영화의 VOD 서비스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화면해설 및 한글자막 영화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자막이 더해진 영화를 말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농아인협회가 영화진흥위원회, CJ CGV, CJ E&M의 지원을 받아 매달 화면해설 및 한글자막 영화를 제작하여 매월 셋째 주 전국의 CGV 상영관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시 ·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및 한글자막 영화로 특별 제작됐습니다.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사랑과 감동의 힘으로 저예산 독립영화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400만 관객의 흥행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 사진출처 : CGV아트센터, 대명문화공장

특히 이번 화면해설 및 한글자막 영화 제작에 배우 조재현 씨가 화면해설을 맡아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재현 씨는 시각장애인 관객들의 이해를 돕고 영화의 감동을 오롯이 전하고자 진지한 자세로 녹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시 ·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및 한글자막 영화의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1월 전국 8개 지역, 8개 상영관에서 상영되었습니다. 노부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와 조재현 씨의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만나 영화의 감동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에는 시 · 청각장애인도 집에서 화면해설 및 한글자막 영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화면해설 및 한글자막 영화 VOD 서비스가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수상한 그녀', '베를린', '타워' 등 2012년 이후 제작된 23편의 화면해설 및 한글자막 영화 콘텐츠를 케이블 TV VOD 홈초이스를 통해 상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1,761만이라는 박스오피스 사상 최다 관객을 동원한 영화 '명량'도 VOD로 제공될 계획입니다.

VOICEYE
voiceye.com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01. 서울메트로와 함께하는 사랑의 김치나누기

김장 담그기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서울메트로와 함께 사랑의 김치나누기를 실시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에 거주하는 시각장애가정 100곳을 찾아 김장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01.

02. 시각장애인 스키캠프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난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시각장애인 스키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참가자와 체육 전공 가이드를 1대1로 매칭하여 스키 기술을 배우고 함께 스키를 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각장애인 스키캠프에는 경주대 특수체육교육학과 재학생 18명이 가이드로 참여했습니다.

02.

03. 서울메트로 건축사업소 후원물품 전달식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서울메트로 건축사업소와 함께하는 사랑의 후원물품 전달식이 실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분들께 후원물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03.

04. 제10회 2014 정보접근성 동향 세미나

지난 12월 9일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주관하는 제10회 정보접근성 동향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컴퓨터로 쉽게 접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접하는 모바일 서비스는 시각장애인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및 모바일 접근성을 인증 받아야 합니다.

웹 개발자 및 모바일 개발자를 대상으로 이번 세미나를 실시하여 웹 접근성,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이 모든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04.

VOICEYE
voiceye.com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

시각장애인이 안내하는 사람의 팔꿈치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내자가 시각장애인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신체의 일부를 잡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각장애인은 안내하는 사람의 팔꿈치를 잡고 반 보쯤 뒤에서 따라 걸으며 안내자의 보폭이나 앞의 장애물 유무 등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 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시각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 상 초 · 중 · 고등학교 및 사회인
내 용 시각장애이해 및 에티켓교육, 한글점자이해, 시각장애체험, 여가 · 문화체험 등
진행장소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진행
체험시간 3시간 이내(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상담·접수 02-950-0133 박승만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우리은행 428-04-103943
외환은행 170-22-00710-6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150-170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T 02.6925.1114 F 02.6925.1117 www.kbuwel.or.kr